

테마칼럼

인생의 의미

미래의 미래

말고 싶은 말

경제로 세상보기

미래 성장동력은 녹색 산업·금융에서



송기진

최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확정, 정부가 발표함으로써 녹색혁명이 탄력과 가속도가 붙고 있다. 녹색산업을 통해 더 나은 환경과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미래금융 성장동력을 녹색금융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그러나 녹색 성장 동력이라는 키워드를 들으면, 녹색산업을 통해 더 나은 환경과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미래금융 성장동력을 녹색금융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현지스님

환경은 산업화를 지나오면서 인간들의 이기적 발달로 인해 악화일로가 점점 심화돼 사회정의 실현하는 각종 단체들 중에 환경이나 자연을 보호하는 단체들의 주장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나 타당성 없는 이기적 주장은 보호를 말하지만 정당하지 못하기에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시민의 이름을 사용하는 보호단체는 더욱 겸손해야 하고 정당한 일에 시민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많은 시민이 호응해 주는 것은 환경

사찰이 자리한 명산마다 공원이란 공공성도 있지만 사찰림은 영연한 사유재산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장화 된 사상으로 소통할 줄 모르면서 어찌 자연과 산 그리고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자연과 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집착과 편견이 아니라 절제와 겸손의 진심이 필요한 것이다. 자연과 산을 지키는 명분으로 산속까지 물러와 확성기를 틀어놓고 위선과 절제되지 않은 폭언으로 진실이 아닌 말을 진실인 것처럼 한 달이 넘도록 무등에 오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어찌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이나 자연보호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삶을 자체가 쾌적한 공간 속에서 서로 소통으로 보호해야 이 세상을 더 볼수록 아름답게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광주에도 약 350여 개의 사회단체가 있다. 시민의 이름을 빌어 운동할 때는 단체와 단체의 협의 속에 시민들의 뜻을 이끌어 낼 때 이를 사용하여 운동하는 것이 예의이며 정당한 것이다. 무조건 시민의 이름을 빌어 초법적 단체인 양 무소불위의 행동으로 한 사람의 견해, 아집, 공격 성과의 말거리로 만들기 위해 50년이 넘는 산장호텔 건물 철거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라 억지 부리며, 법도 무시하고 의리도 저버리고 위아래도 살피지 않고 상식도 없는 주장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상처를 주는 일에 시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될 것이다.

하고 근심스럽게 하는 것은 정말 가관이었다. 침묵하여도 비난하고 진실을 말하여도 비난하며 우리 것을 지키려 해도 비난을 퍼부었다. 진실을 거짓이라 말하고 거짓을 진실로 말하는 이들은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보양삼 때문에 말씀하시길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말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려 하면 원망하는 마음을 듣게 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듯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말하지 마라.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뜻을 삼으라 하였다. 참으로 금구상언(金口上言)의 말씀이다. 그러나 수행이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란 그러다 그들의 주장과 비난하는 일들이 거짓이라며 호소하고 싶다. 또한, 천년의 세월동안 무등산과 자연을 사랑하며 지켜온 무등의 사찰들처럼 나도 삼보장제들을 가꾸며 지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무등산 원효사 주지>

여름철 동네슈퍼 식품류 보관 위생에 더 신경써야

슈퍼의 계란은 냉장고에 들어있지 않은 채 모두 상점 밖 진열대에 놓여져 있다. 한여름 30도를 웃도는 폭염에 계란을 그렇게 쌓아뒀다가 팔 수 있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들었다. 슈퍼에서 파는 건 순직히 언제 상할지, 또는 상하기 직전의 것을 파는 건 아닌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약간 상한걸 모른 채 사다 먹는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 대형 마트에 가면 그 실내용도가 식품류를 진열하기 알맞게 시원하고, 모든 식료품

은 냉장실에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가 팔리는 걸 본다. 주부들은 그래서 안심하고 구입한다. 요즘 대형 마트 때문에 동네 슈퍼가 죽고, 재래시장이 어쩔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주부들이 슈퍼나 재래시장을 기피하고 대형 마트에 가는 게 아닌지 동네 슈퍼 사장님들은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한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식료품 보관에 좀더 신경써주셨으면 한다. <전혜옥·광주시 동구 서석동>

기고



이정훈

얼마 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복을 입고 한 손에 보따리를 든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아저씨, 딸 집에 가려는데 차비가 없어요. 오백 원만 주시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지갑을 꺼내 천 원짜리 한 장을 선포 드렸다. 그 돈을 받은 할머니는 "고맙습니다." 하시더니 주변을 둘러보다가 몇 걸음 떨어져 있는 어떤 중년 부인 쪽으로 가시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버스가 와서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는지 모르겠다. 훗날 놀란 그분은 얼른 피해 내 옆을 스쳐 가시고 주변의 여려사람이 우리를 힐끗 쳐다보며 지나갔다.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당황했다.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을 해봤다. 큰 실수를 했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동생도 그 할머니를 한번 만났는데 잔돈이 없어서 난처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에게도 연로하신 할머니가 계신다.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한 행동이 지나치다고 깊이 반성했다. 그 할머니는 정말 먼 곳에 사는 딸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할머니

그런데 다음날 그 정류장에서 그 할머니를 또 만나게 되었다. "아저씨, 딸 집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 쓸쓸한 어항에 처량한 표정 그리고 그 보따리, 어제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멍찔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 속에서 그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쳐다봤다.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묵묵히 또 천원을 드렸다. 그러나 버스를 타서도 무엇인가 찜찜한,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집에 가려고 차비를 모으시는 중이었는데도 모른다. 아니면 상습적인 구걸 행위로 생계를 유지하시는지도 모른다. 요즘은 청년 실업자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젊음'이라는 큰나쁜 재산이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다르다. 소외감만 갖고 계시는 뿐이다. 최근 무의탁 노인들의 숫자가 부쩍 늘어난다는 기사를 읽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라도 외롭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관계 기관과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새삼 해본다. 회상인인 나는 동료들과 함께 자주는 못 가지던 가끔 노인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찾아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때마다 정류장 할머니가 자꾸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보다. <회사원>

단기로 끝나는 희망근로보다 장기 일자리 마련을

내가 하는 일은 희망근로자들의 일터를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사업들에 대한 소개와 근로자들의 현장체험 등을 사진과 글로 남기는 '희망리포터'라는 일을 한다.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느낌을 이야기형 식으로 서술한 것으로 삶에 대한 희망의 진솔한 기록이다.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시행 초기의 비판에도 많은 참여자가 이번 사업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고 있는 모습을 볼 때 6개월이 아닌 계속 일자리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중 희망근로 상품권 이용은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동병상련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도 되고, 적은 금액의 상품권으로 생필품을 구입하지만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하면 침체된 경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오늘도 희망을 안고 땀 흘리는 근로자와 따뜻한 대화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추수해 본다. <안치연·광주시 남구 월산동>

시설

동네상권 보호 조례제정만으론 미흡하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장에 대한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광주 시의회가 동네 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광주시의회 산하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8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대형유통점의 입점 가능 바닥면적을 현재 2천㎡ 미만에서 1천㎡ 미만으로 축소했고, 준주거지역에서도 현재 3천㎡ 미만인 입점 가능 바닥면적을 1천㎡ 미만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시에서는 상업지역(충장로·상무지구·철단지구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바닥면적 1천㎡(330평) 이상 대형유통점의 입점이 제한될 전망이다. 그러나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례제정만으론 미흡하다.

다. 대형 유통점과 기업형 슈퍼의 무분별한 동네 상권 진출로 재래시장과 동네 소매점, 슈퍼마켓 등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형 슈퍼가 18곳에 달하는 광주지역의 경우 연내 3~4곳이 추가 개점을 서두르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가 시급하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된 독과점 금지 원칙을 통해 합법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자체별로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지역경제영향평가에 근거해 출점을 허가해야 한다.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등 동네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동네상권도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형유통점에 비해 먹거리 판매 가격이 20% 이상 저렴하다는 점 등 재래시장의 장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급증하는 빈곤 여성가장 대책 서둘러라

우리 사회에서도 이혼 등에 따른 여성가장이 급증하면서 '빈곤 여성가장'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담자 찾아온 실직·빈곤 여성 220명 가운데 66.4%가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 가장이었다. 여성가장 가운데 월평균 가구수입이 최저 생계비(4인 가족 기준 132만6천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 미만인 45.8%에 달했다. 여성가장 대부분이 빈곤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40.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8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는 가장 낮은 국가인 핀란드보다 약 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빈곤율이 높은 국가도 20% 수중에 불과하다.

성노동자회를 찾은 여성가장 중 이혼(36.4%)과 남편의 실직(10.5%)이 절박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담자 찾아온 실직·빈곤 여성 220명 가운데 66.4%가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 가장이었다. 여성가장 가운데 월평균 가구수입이 최저 생계비(4인 가족 기준 132만6천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 미만인 45.8%에 달했다. 여성가장 대부분이 빈곤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근본적으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빈곤의 세습화를 단절할 수 있는 포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가 왔다. 빈곤이 악순환되고 있는 여성가장들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 확충, 자녀양육 지원 등이 우선돼야 한다. 여성가장들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히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절실할 때다.

無等鼓

건배(乾杯)는 원래 죽은 사람에게 행하는 종교적 의례가 훗날 서로 축복하는 형태로 변한 것이다. 말 그대로 술잔을 단숨에 비우는데 이는 옛날에 불잔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술잔을 맞대는 것은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고, 주객이 동시에 술을 따라 건배하는 것은 독주가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최근 외신을 보면 중국에서 고위 관리들의 잇단 음주사망으로 전통적인 건배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제기되고 있다.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건배의식에 대한 중국사회 내 자성의 목소리가 높고, 이례적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체면과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전통의식에 기인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연회든 개인 모임이든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셔야 하고 단숨에 술을 비우는 건배의식이 만연해 있다.

건배



영국에서는 건배를 토스트(구운 빵)라고 한다. 그것은 찰스 2세 때 토스트를 술에다 담가서 먹던 습관이 있었을 때 어느 날 연회장의 연못 가운데 서 있는 미녀를 본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연못을 술로, 미녀를 토스트로 비유하여 술은 더 필요 없고 토스트를 먹고 싶다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브라보(만세 또는 칭찬의 뜻) 또는 아보트르상테(건강을 축하한다는 뜻)하며 건배한다. 나라마다 건배 풍습도 달라 잔을 비운 후 술잔을 깨기도 하고, 잔을 든 팔을 서로 걸고 마시기도 한다. 또 건배의 증거

원산물을 외치는 거 하여 술은 더 필요 없고 토스트를 먹고 싶다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브라보(만세 또는 칭찬의 뜻) 또는 아보트르상테(건강을 축하한다는 뜻)하며 건배한다. 나라마다 건배 풍습도 달라 잔을 비운 후 술잔을 깨기도 하고, 잔을 든 팔을 서로 걸고 마시기도 한다. 또 건배의 증거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